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세계성찬주일 자료 꾸러미의 일부입니다. 각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수금을 나무에 걸고, 타국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편 137편은 편안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시는 뿌리 뽑힌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표출하는 슬픔과 분노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래와 침묵, 고향과 온전함과 치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정체성이 흔들리며, 공동체가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일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추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영적, 정치적 유량이라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민자, 망명자, 난민, 이주민, 실망한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금을 나무에 건 채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시간대와 국경을 넘어, 성찬의 잔을 들고 떡을 떼며, 선포합니다. 모든 아픔, 모든 방언, 모든 이야기를 담을 만큼 넓은 식탁이 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잊지 않습니다. 이 식탁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나야리트(Nayarit)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을 위한 마음의 피난처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음식은 기억처럼 느껴졌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은 낯선 이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나탈리아 몰리나는 그녀의 할머니가 남긴 이 유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야리트는 단지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엄, 이야기, 존재의 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떡과 잔을 넘어서는, 기억과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급진적인 환대가 펼쳐지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단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함께 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절박하고, 불확실하며, 압도당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격려 대신,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무를 뽑고 땅을 바꿀 힘을 가진 존재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종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밭에서 돌아온 종은 눕지 않습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종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가장 절실한 부르심은 무엇 일까요? 바로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아무도 잊히지 않도록, 방치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받기 위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완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주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앉아, 먹고,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이 알게 하고, 변화를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성찬은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언적 선언입니다. 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이 식탁은 우리가 꿈꿨던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세계성찬주일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문화 속에서도, 이곳은 여전히 상호성과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는 선언입니다.

신학자 노먼 위어즈바는 음식과 창조에 대한 글에서 먹는 것은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니며, 관계적이고, 영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실천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보통의 것이 위대한 것으로 변화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찬송가 “묘한 세상 주시고(For the Beauty of the Earth)”는 단지 자연을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감사에 관한 찬송입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일과 우리 주변에 있는 땅과 식탁과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한 찬송입니다.

세계성찬주일인 오늘, 이 땅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의 아름다움과 만나, 각자 다른 조성으로 부르는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이 순간이 설교자에게 허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자들은 탄식과 찬양 사이의 긴장감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먹는 행위와 평등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환대는 친절이 아니라, 거룩한 저항이라는 관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으로 낮은 이를 형제로 바꾸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특권을 확인받는 자리가 아닌, 은혜로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 자리로서의 성찬 식탁에 관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상적인 주일이 아닙니다. 균열을 직시하면서도, 잔치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유랑의 현실을 고백하면서도, 떡을 떼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바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들판이든, 성 소이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식탁으로 오십시오. 말씀과 함께 앉으십시오. 세상과 함께 앉으십시오. 긴장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식탁을 준비하십시오. 누군가가 그 환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헌금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서는 용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국경,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사역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드리지 않고, 미래에 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을 확장하여 모든 이들이 거기서 자신의 자리와 목적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이트 알레리지 목사, 해리스연합감리교회.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빌.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그리스도의 식탁을 모두에게 확장합니다.